

“용담댐 수상태양광 수용 불가”

전북도, 수자원공 추진에 공식 '반대' 입장 표명
“도민에게 안전한 상수도 공급하는 것이 우선”

전북도는 최근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서 추진중인 용담호 수상태양광 설치 추진과 관련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북도민의 70%인 130만명이 마시는 광역식수원에 수자원공사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도가 강력한 반대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김인태 도 환경녹지국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도민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이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이번 용담댐 수상태양광 추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김 국장은 또 “용담댐을 다른 댐과 직접비교해 동일한 결과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전문가들이 밝힌 바 있는 수질 생태계 문



보령댐 수상태양광 설치 모습. (참고자료, 사진=전북도 제공)

제 제기, 국정감사에서의 폴리타일렌 파손 위험 등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상 태양광 패널을 현행 수도법에 따라 수도용 위생 안전기준(용출시험)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할 계획이고 환경과 안전에 대

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수질 및 안전에 문제가 없이 완벽한 것인지 우려되며, 무엇보다 도민의 정서상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특히 도가 용담호의 물을 먹고 있는 5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수상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경관 훼손은 물론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진안군 역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추진은 타당하지 않다는 방침을 정하고, 수질오염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사업 추진은 재검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용담호 수상태양광 설치 사업의 부적합성을 알리고 반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도는 수자원공사와 전북지방환경청에 도와 시·군 입장을 전달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청이 10월 말까지 청사 내 천년누리광장(실개천, 잔디광장, 잼버리홍보관, 탄소전시관)에서 어린이집 대상으로 '도청으로 소풍 오는 날'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송하진 도지사가 환경행사를 갖고 실개천에서 물놀이하는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도청광장에 아이들의 웃음소리 '만발'

도, '소풍 오는 날' 운영... 6월 한달간 어린이집 19곳, 915명 방문

전북도가 도청광장을 완전 개방해 이를 어린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채우고 있다.
도는 올해 6월부터 10월 말까지 청사 내 자연친화적으로 새롭게 조성한 천년누리광장에서 도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소풍 오는 날'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도청광장은 2016~2017년에 기존의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을 걷어내고 자연친화적인 잔디광장, 다목적 운동공간, 물이 흐르고 발을 담글 수 있는 실개천, 산책로 등을 조성되었고, 2018년 도민공모를 통해 '천년누리광장'으로 이름 지어졌다.
도는 소풍 오는 날 운영에 앞서 지난 4월 전라북도 어린이집 연합회의 현장답사를 통해 그늘막 등

부족한 시설을 보완했고, 5월 초 시범운영을 통해 검증된 두 가지 코스를 운영하고 있다.
1코스 '잔디밭 코스'는 놀이마당에서 소규모 놀이활동과 자연형 실개천 주변 산책, 청사 1층 로비의 잼버리 홍보관과 탄소 전시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고, 2코스 '실개천 코스'는 길이 25cm의 인공형 실개천에서 발 담그기 놀이를 하고 1층 로비 잼버리 홍보관, 탄소 전시관을 관람할 수 있게 했다.
도는 6월 한달 간 운영한 결과, 12회에 걸쳐 19개 어린이집, 915명의 어린이가 도청을 방문했으며, 10월 말까지 총 74회에 걸쳐 158개 어린이집, 6389명이 다녀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진성 기자

현장을 찾은 송하진 도지사는 도청을 찾은 어린이들과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환영하고 도청 천년누리광장 잔디마당에서 신나게 뛰놀고 실개천에 발 담그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당부했으며, 앞으로 전북을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해 주길 기원했다.
또한 천년누리광장에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개화시기를 달린 다양한 색상의 꽃을 심는 '사계절 꽃이 피는 광장 조성'사업과 전문화도시를 상징하고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한옥정자 건립'을 통해 명실상부한 전북도를 대표하는 광장으로 조성해 도민들에게 여가 활동과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한-코스타리카 지방정부, 국제협력 '약속'

전주시 포함 전국사회연대지방정부협, 코스타리카 경제개발협의체와 MOU
사회적 경제 · 사회 혁신 · 지속가능 개발 분야 활발한 국제교류 나서기로

전주시를 비롯한 대한민국 지방정부와 코스타리카 지방정부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관련기사 4면)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사무총장 김승수 전주시장)는 코스타리카 현지시간으로 지난 11일(한국시간 12일 새벽) 코스타리카 산호세 대통령궁에서 사회적경제 방법론을 지역발전의 최고 전라로 삼아 성공적인 지역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코스타리카 경제개발협의체(IFAM, Institute of Municipal Development and Advisory)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한국정부 대표단과 IFAM 소속 코스타리카 40개 지방정부의 장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협약에서 양 측은 △사회적경제 △사회혁신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의 활발한 국제교류에 나서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양 기관에서 주체하는 국제회의를 상호 홍보하고 교육과 사회적기업가 정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상호 정책 벤치마킹 및 모범 사례 교환 등도 활발히 추진될 예정이다.
김 시장은 또 산호세 시장(Johnny Araya Monge)을 만나 두 도시가 지난 2011년 맺은 우호협력관계에서 본격적인 협력도시로 발전하는 자매도시로의 승격을 논의했다. 향후 두 도시는 사회연대경제 연수와 행복도시 정책 교류, 문화와 관광,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4차 산업혁명 기술교류 등을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사회적경제 · 도시재생 분야의 우수사례를 배우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0박 13일 일정의 북중미 순방길에 올랐다. 김승수 시장은 “행복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경제 육성에 집중하고

있는 카를로스 알바라도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IFAM소속 지방정부의 노력은 전주시가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어 가는 데 귀한 사례가 될 것”이라며, “코스타리카와의 꾸준한 파트너십을 통해 서로 배울 것은 배우고 함께 나눌 것은 나누며 가장 인간적인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사회적경제 분야 협의의 기구로,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해 8월부터 협의회 실무를 이끄는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송호철 기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곡류 고품이독소 저감기술 개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는 곡류 내 고품이독소 저감화 가공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가식품클러스

터지원센터는 지난 2016년부터 쌀과 보리 등의 곡류에서 발생하는 오크라톡신A(Ochratoxin A, OTA) 저감화를 위한 연구를 지원해 왔다. OTA는 곰팡이가 생산하는 2차 대

사산물로 급성 또는 만성질병이나 생리작용 이상을 유발하는 발암성물질이다. 가공기술 개발에 성공한 이광원(고려대) 교수 연구팀은 관련 기술 3건에 대해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제11대 전주시의회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전주시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공부하고 연구하는 혁신 의회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하는 실천 의회



<전주시의회 본회의>



<전주시의회 지방의회 체류교실(230-3731)>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전주시의회
시민여러분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방청안내 230-3713>



전주시의회

http://council.jeonju.go.kr